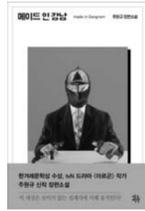


“강남 클럽 성범죄·마약 유통...경찰 유착 정황 수차례 목격”

강남 클럽 잠입취재 소설 '메이드인 강남' 펴낸 주원규 작가



“그곳에선 소설보다 더한 소설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시민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성범죄와 일탈이 횡행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곳은 뒤떨어진, 비열함과 악랄함 그리고 쾌락이 뒤섞인 ‘도가니’였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유통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클럽 MD들 가운데는 VIP 손님 성접대를 연결해주는 0.1%에 달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들은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수익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클럽에서 남녀를 연결해주는 일반적인 MD들도 많지만 한편으로 돈의 유혹에 넘어가 성매매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수익은 훨씬 된다”고 덧붙였다.

주 작가의 이번 장편 ‘메이드인 강남’(네오 픽션)에는 강남 클럽에서 벌어지는 마약, 도박, 성매매 등 음지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지난 2016년 6개월간 직접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별천지의 실상을 목격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살인사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상황과 에피소드는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일이다. 주 작가가 이번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그의 복회 활동과 무관치 않다.

“2012년부터 가출 청소년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가 아이들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아직 성인도 안 된 친구들인데 알고 보니 그들의 종착지가 강남 클럽이었죠. 클럽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



〈주원규 작가 제공〉

다는 소문에 발을 들이게 됐던 거구요.” 그는 클럽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다고 한다. “나무도 안타깝게도 여성 접대부로 일을 하거나 남자 애들은 클럽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에서 참담함이 느껴졌다.

주 작가는 “클럽에서 성매매를 하는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거의 없고 포주로 대변되는 약의 구조만 있을 뿐”이라며 “여성 포주 MD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더욱 가혹하고 잔인한데, 그것은 여성의 심리를 약점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

광주일보 신춘문에 등단 목회자로 활동 중 사라지는 가출 청소년 찾아 클럽서 6개월 아르바이트

비열·악랄·쾌락의 ‘도가니’ 소설 속 살인사건 제외 마약·도박·성매매는 ‘팩트’

‘육망의 전차’ 멈출 수 있나 ‘악의 굴레’ 조장하는 세력 발본색원이 해결의 시발점

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성매매를 하는 가출 청소년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라는 인식에 얽매게 된다”면서 “나이와 주민등록을 속인대다 성매매를 한다는 죄책감이 나중에 마약 중독에까지 빠져든다”고 말했다.

특히 유명 연예인과 연계되는 성매매 때문에 대해서도 주 작가는 이번의 실상을 이야기했다. “3년 전에 지금처럼 연예인을 클럽 간판으로 내세우려는 방식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결국 그런 방식이 오늘의 “승리나 정준영 같은 케이스가 출현하게 된 원인인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정준영의 2016년 ‘볼카’ 사건 무혐의는 생각할수록 아쉬워요. 당시에 제대로만 수사했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은 반복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빠져나오고 자신감을 얻었던 것이 잘못된 방향의 ‘기폭제’가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경찰은 탈선과 일탈이 버젓이 통용되는 일부 클럽의 실태를 몰랐을까. 정 작가는 “경찰과 유착돼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6개월간 잠입을 하면서 그러한 정황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것이다.

“누군가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성폭행 신고를 해도 경찰들은 클럽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클럽 관계자와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다 가 버리고 했구요. 녹취된 것을 제대로 하고 접촉도 했지만 무관심 속에 묻혀버리는 게 다 반사였습니다.” 그의 말은 경찰들의 행태가 지극히 비상

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 CCTV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인데 “그마저도 하지 않는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인지 의문이 든다”고 회의감을 드러냈다.

주 작가는 인터뷰 말미에 오늘과 같은 비윤리적인 현상은 배금주의와 성공지상주의가 낳은 괴물이라고 진단했다. 전형적인 사회화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어떤 VVIP는 강남만이 공화국이고 다른 지역은 쓰레기하치장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로 해서 대한민국이 먹고 산다는 변형하고 왜곡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은 도덕 불감증에서 야기된 망상이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 같은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개선해야 나갈까. 과연 ‘메이드인 강남’이라는 ‘육망의 전차’를 멈추게 할 수는 있을까.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먼저 국민들이 공분을 해야 하겠지요. 다행히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 조사를 얘기하셨으니까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진실을 가로막고 악의 굴레를 조장하는 세력은 이번 기회에 철저히 파헤치는 것이 해결의 시발점이 아닌가 싶어요.”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반도 평화 시국회의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 시국회의’에서 종교, 시민사회 등 각계 참석자들이 한반도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북, 밝은 미래 위해 검증된 비핵화 먼저”

폼페이오,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재개 의지 밝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the verified denuclearization)가 이뤄지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옛 지역구인 캔자스주를 방문, KCMO 등 지역 언론단체와 잇따라 한 인터뷰에서 “북한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진짜”라면서 “선

(先) 검증된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최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협상 중단’ 검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지속 입장을 열어두면서도 사찰·검증을 전제로 하는 ‘검증된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빅딜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북미가 정상회담에서 기대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시기와 순서 배열을 둘러싼, 그리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여러 이슈가 있다”며 “순서배열을 올바르게, 그리고 (북미) 각각이 동의할 수 있고 남북간 국경을 따라 조성된 긴장을 허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26일부터 허용

국무회의의 공포안 의결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을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공교육 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됐으나 여론 반발 때문에 시행이 유예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만 금지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취임하면서 부활을 약속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시기가 늦춰졌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 이 중 금융혁신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했다. 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위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혁신법 시행령은 지난해 말 공포된 금융혁신법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

임야·땅
바로잡니다. 010-6834-7400
단독식/지분물건 환영

월드인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3월 16일 개강 ●

2018. 2. 4일부터 시행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홍보, 상담, 등록 등 인식교육을 담당할 월드인전문 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모집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12일(화) 선착순 00명
교육기간 2019년 3월 16일(토) ~ 3주(토) 총 30시간
수강료 25만원, 자격증비 5만원, 교재비 1만원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0-709185 대한월드인협회 광주광역시지부
교육장소 KT빌딩 6층(전남여고 옆), (주)리처클드에셋 강의실
상담전화 ☎ 062)511-0030, 010-5522-9700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한월드인협회 광주지부

★ 본 지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기관, 단체의 요청 시 전문강사, 전문상담사를 파견합니다.
· 문의전화 : ☎ 062)511-0030 · 팩스 : 062)512-8767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삼계면 죽림리 1536㎡ 백일홍·푸지뽕나무 200여주있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자은면 한우리 해수욕장 접 1654㎡ 별장 등 적합 분할가능 3억7천
- 무안군 해제면 바다 150m 대지 790㎡ 팬션 전원생활적합 4천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영광 염산면 신성리 땅 3088㎡ 주택 95㎡ 유실수 100여그루사채 2억
- 서구 화정동 양면 소방도로 접 235㎡ 주택은 공실 조용한생활적합 3억3천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룸7 개환가능 임대중임 4억7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밑 4차선 접 4630㎡ 대형 저주지 인근 요양시설 적합 5억
- 농성초 건너면 월산동 소방도 코너 상가주택 대지 118㎡ 주택 78㎡ 1억9천
- 무안읍 원동·다세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음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8억9천

상가건물

- 운암동 대형 아파트단지 지하 205㎡ 사무실 등 다용도 교환가능 2억2천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2억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면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장흥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 등 적합 원룸부지와 교환가능 4억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접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2천
- 니주 금천면 국도 접 주거지·대지·자연녹지 25714㎡ 은행 12억 매도 24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71억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사육 등 적합 12억
- 충장로 47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100. 25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3층, 38평, 사무실전용
■ 전체율수리, 하천방향
■ 주차 3대 무료, 관리비 저렴
■ 보500만원에 월 50만원 임대가능
■ 시세/감정가 - 1억2천만원
■ 급매 - 7500만원
문의.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